

#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마련

### 분교장 폐지·통합운영학교·학교 이전 등 도교육청, 공론화 과정 등 거쳐 통합 추진키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통합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없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신도시 지역은 학교 신설이 요구되면서 지역내 학교 재배치 등이 필

요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각 교육지원청별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실무추진단을 구성,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주체들이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즉시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적정규모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으로는 분교 및 분교장 폐지, 통합운영학교, 학교 이전·신설 등이 있다. 분교 및 분교장 폐지는 전교생 10명 미만 학교나 통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는 1면 1교로 통합 운영학교는 제외한다. 통합운영학교 역시 희망학교 대상이며, 학교 이전·신설은 개발지구 등 학생 증가에 따라 학교 신설을 대체해야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학교 이전·신설은 학교별 특성, 인구 및 학교부토, 통학거리, 학교 선호도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시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분교장 개편은 학생배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년 이상 장기 휴교는 행정예고를 거쳐 폐교로 전환된다. 한편 폐지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미래학교 우선 지정,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시설 개선, 통학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그동안 작은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인구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구밀집지역 대규모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지역 간 편차없는 안전체험 교육기회 제공 도모 거점별 안전체험관 세운다

### 도교육청, 동부권 '종합형 산악안전체험관' 북서부권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립키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들에게 지역 간 편차없는 안전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점별 안전체험관 설립을 추진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동부권에는 종합형 산악안전체험관을, 북서부권에는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 교육보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현재 도내에 는 부안(서부권)의 해양안전체험관과 고창(남부권)의 산악안전체험관, 그리고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임실 119안전체험관이 전부다. 이에 도교육청은 남원의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위치 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종합형 산악안전체험관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산악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현장체험학습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한 산악탈출 △응급처치 △버스

사고 △산악탈출 △태풍 △집중호우 △산악사고 등 체험형 콘텐츠를 소방청과 협력해 운영한다. 또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종합형(소규모형 포함) 안전체험관이 없거나, 체험관과 거리가 멀어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유유교실을 활용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화재 △응급처치 △지진 △태풍 △환경안전 △교통안전 △산악안전 등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한공수 정책공보관은 "권역별 학생 안전체험관 설립은 모든 학생들에게 지역 간 편차없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이라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습 위주의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및 위기 대처 능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LINC3.0사업 문화관광분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스마트관광 분야를 선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가톨릭관동대 LINC 3.0 사업단·전주관광마케팅(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관광 분야 인재 양성 상호협조체제 구축

### 우석대-가톨릭관동대-전주관광마케팅, 협약 체결

### 전북·강원 학술교류, 학생 취업기회 제공 등이 주내용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스마트관광 분야를 선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톨릭관동대 LINC 3.0 사업단·전주관광마케팅(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순화 우석대학교 스마트관광 ICC 센터장과 한진영 가톨릭관동대 문화관광콘텐츠 ICC 센터장, 정승진 가톨릭관동대 기업협업지원센터장 임준희 전주관광마케팅(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스마트관광 ICC(Industry coupled Collaboration Center) 산업분야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북도도와 강원도의 스마트관광 콘텐츠 관련 학술교

류 △문화·공연예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지원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 및 취업기회 제공 △각 기관의 인적자원 활용 및 장비·시설의 공동 이용 등이다. 이종석 단장은 "스마트관광 분야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 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전북대 류덕산 교수

### 'PLOS ONE' 편집위원에



전북대학교 류덕산 교수가 소프트웨어공학과가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제 SCI 학술지 PLOS ONE

(인용지수 3.752) 저널의 편집위원(Academic Editor)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류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품질 분석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그간의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PLOS는 온라인 학술 저널 시리즈로 모든 내용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Open Access 방식으로 출판하고 있다. 이 중 PLOS ONE는 매월 약 1500개에 가까운 논문을 발간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SCI 저널이다.

이번 선정으로 류 교수는 PLOS ONE의 컴퓨터 및 정보과학 분야에서 논문 게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한편 류 교수는 소프트웨어공학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특히 2022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됐고, 국내외 학술대회 및 저널에 70편이상의 논문을 출간하는 등 총 15회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회계연도 결산업무 담당자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결산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업무 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시기에 맞춰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전달하고, 에듀패인 결산시스템을 교육하는 등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결산은 해당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된 계수(計數)로 표시하

는 행위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구성된다. 2022 회계연도 결산은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4월 중 전라북도회계에서 선정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6월 도의회 결산승인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김형태 재무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작업이 이뤄지고, 재정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프로젝트 호응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은 선배 유학생이 후배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해 5주간 프로젝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에 30여 명의 유학생이 참여했다. 유학생들은 선배 유학생의 지도를 받아 스터디그룹 활동 및 특강 모의시험 등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8일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제86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도 주어진다. /정은성 기자

선배 유학생으로 참여한 쥘타이션(경영화)은 "내가 쌓은 한국어 공부 방법과 지식을 후배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얻게 되어 보람되고, 후배를 가르치면서 자신감도 얻었다"며 "열심히 공부한 모습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혜금 원장은 "방학 기간에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선배 유학생의 실천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